

곡성 '우리 마을 복지 문제 우리 손으로 해결'

11개 읍면 20개 마을복지계획 수립...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곡성군이 올해 11개 읍면에서 20개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직접 지역 내 소규모 복지 의제를 발굴, 계획,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에서는 2020년부터 3년간 추진 중이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주도하기 때문에 각 읍면의 실정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다양하고 복지 문제에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이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주민 자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역량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는 결국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귀결된다.

곡성군에 따르면 20개 마을복지계획 중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전 교체, 미용 서비스,

안전바 설치, 생필품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매년 현금, 백세미, 밀반찬 등의 지역 사회 기부가 더해지면서 마을 복지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마을 복지 서비스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된다는 점이다. 각계각층의 주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고독사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곡성군은 오는 12월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11개 읍면에서 추진했던 마을복지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겪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한 방안 등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마을복지계획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관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특색있게 할 것이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마을 복지계획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이상서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우기철 재해위험지역 안전 점검 재난 대비 주요 건설 사업장 방문... 군민 안전 확보 최우선 강조



보성군은 지난 21일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담당 국과소장 및 읍·면장과 함께 우기철 재난 대비 재해위험지역과 사업장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추진됐다.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주요 공사 현장, 읍면별 재해위험 취약지역 및 주택 인근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점검 이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상황 대책 회의를 개최

했다.

김 군수는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장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즉각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환경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자연 재난에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만잡월드, 25~26일 '찾아가는 미래직업 특강'

순천만잡월드는 오는 25일~26일 이틀간 '찾아가는 미래직업 특강'을 진행한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순천만잡월드가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직업 멘토인 박창룡 대표와 함께 다양한 진로탐색과 관련된 직업체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특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 보고 순천만잡월드 직업체험관에서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으로써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특강은 전남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루 40명(학생 20명, 학부모 20명)씩 온라인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모집하여 진행한다.

학생 참가비는 15000원이며 학부모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미래직업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순천만잡월드에서는 가족이 함께 서로의 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만잡월드 외부광장과 5G체험관에서 22일부터 27일까지 찾아가는 과학체험 행사 2022년 두드림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고흥 민·관 협력 위기가정 문제해결 나선다

분기별 사례관리회의 개최·실질적 솔루션 제시

고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흉양홀에서 13개 기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기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갖고 지역 내 위기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례는 정신

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가정과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취득 등의 법적 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지원체계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대상에 대해 ▲자녀양

육코칭 ▲모자 심리상담 ▲정신과 의료비 ▲긴급복지 생계비 ▲주거보증금 ▲채무해결을 위한 금융상담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민·관 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사례대상에 대해서도 ▲아동의 국적취득 ▲모의 체류기간 연장 ▲현 거주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대두된 문제에 대해 주 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는 등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기관 사례관리사는 "대상가구에 제공되는 서비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흥=최혁민 기자



광양시장직 인수위, 광양제철소현장 방문

상생 협력 다짐... 민선 8기 성공적 취임 준비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시장 주요 현안 보고 청취, 대규모 사업현장 방문에 이어 지난 21일 광양제철소 산업현장을 시찰하는 등 공약사항 점검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방문은 광양제철소의 초청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산업현장 방문으로써 1만 5000여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민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를 이끄는 산업현장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수위원들은 철강 기술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광양제철소의 성장 과정과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주요 시설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관람하고,

매년 5만여 명이 찾는 열연공장을 시찰했다.

인수위원회를 맞이한 이진수 광양제철소장은 "광양제철소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광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방문에 함께한 정인화 당선인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광양시와 포스코의 상생협력을 추구합니다. 서로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민선 8기 광양제철소 관련 공약사항으로는 교육 분야 2건, 정주여건 분야 1건, 산업경제 분야 1건 등 4건으로 인수위원회는 분야별로 공약사항을 점검 중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시 2023정원박람회 대비 음식점 환경개선 추진

입식테이블 지원·화장실 시설개선 추진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품격있는 외식문화조성과 정갈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좌식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거나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많은 음식점 영입주에게 도움을 주고 순천의

음식점을 찾는 고객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식탁교체·개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모범음식점 등 시책참여 우수업소 및 노후·취약시설 등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대상 확정업소는 위생등급제 건설됨에

반드시 참여해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지원 희망업소는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7월 6일까지 신청서류를 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1-749-6852)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영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100개 업소에 시설환경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